

재규어스 뒤집기쇼·타요바리스타즈 15점 화력 '4강행'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카뮈트진남V-KOOL 홈런 3방, 블랙이글스 제압 준결 진출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무등리그 결승 진출을 다룬 4팀이 확정됐다. 지난 2일 광주일고야구장에서 무등기 4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다. 이날 무등리그 8강전 두 경기와 함께 광일리그 8강전 등 모두 세 경기가 진행됐다. 앞선 3라운드에서 페가수스와 자연환경유한회사야구단이 무등리그 준결승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재규어스야구단과 타요바리스타즈도 8강전의 승자가 되면서 무등기 정상에 향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재규어스는 로즈스나이퍼스와의 경기에서 뒷심 싸움에서 앞서며 4-2승을 거뒀다. 0-2로 뒤진 3회 2점을 만들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재규어스는 5회에도 2점을 보태면서 역전극을 연출했다. 타요바리스타즈도 포프리를 15-9로 꺾

고 무등리그 4강 마지막 티켓을 차지했다. 타요바리스타즈는 1회 3실점으로 출발했지만 이어진 1회말 공격에서 이기남의 솔로포 등을 앞세워 6-3으로 승부를 뒤집는데 성공했다. 이후 화끈한 공세로 15점을 만들며 승리를 거뒀다. 블랙이글스를 상대한 카뮈트진남V-KOOL은 홈런 세 방과 함께 광일리그 첫 4강행 주인공이 됐다. 3-1로 앞서 3회 김용준과 윤명훈이 나란히 솔로포를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고 왔다. 5회에는 공명규도 한방을 터트리는데 등 3개의 홈런을 앞세운 카뮈트진남V-KOOL이 9-3 승리를 거두며 준결승 무대에 올랐다. 한편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야구협회와 주관하며 광주광역시체육회, 전라남도체육회, KIA 타이

◆무등기 4라운드
 <1경기(무등리그 8강전·6회 시간 제한)>
 로즈스나이퍼스:020000-2
 재규어스야구단:00202X-4
 ▲승리투수: 홍길준
 <2경기(무등리그 8강전·5회 시간 제한)>
 포프리:30123-9
 타요바리스타즈:6054X-15
 ▲승리투수: 최병은 ▲홈런: 이기남 (1회 1점·타요바리스타즈)
 <3경기(광일리그 8강전)>
 카뮈트진남V-KOOL:3030300-9
 블랙이글스:100110X-3
 ▲승리투수: 정종남 ▲홈런: 김용준 (3회 1점), 윤명훈(3회 1점), 공명규(5회 1점 이상 카뮈트진남V-KOOL)
 거즈가 후원한다. 아름다움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업 아로마라이프(회장 이학재)도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에 함께한다. /김여울기자 wool@



지난 2일 광주일고 구장에서 열린 아로마라이프배 제6회 무등기 광주전남사회인 야구대회 무등토너먼트 로즈스나이퍼스와 광주재규어스의 경기. 5회말 몸에 맞는 볼로 진루한 광주재규어스 서준호가 김용신의 타석때 2루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3일 오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김선빈이 4회말 2사에서 좌중간 3루타를 날리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핵터·김선빈 활약 kt 위즈에 2연승 남은 3경기 1승하면 5위

5년 만의 '가을잔치'가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 KIA 타이거즈의 1승 또는 SK 와이번스 1패만 남았다. KIA가 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9-6 승리를 거뒀다. 전날 핵터의 완투승으로 3연패를 끊었던 KIA는 연승에 성공하면서 이날 경기가 없었던 6위 SK를 두 경기차 밖으로 밀어냈다. KIA가 남은 3경기에서 1승 이상을 거두면 자격으로 5강행 티켓을 차지한다. 빠른 5일 KIA의 '가을잔치'가 확정

된다. KIA는 이날 대우로 가 삼성과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 경기에서 KIA가 승자가 되면 SK는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해도 KIA를 따라잡을 수 없다. 5일 5강 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6일 두 곳의 경기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이날 KIA는 챔피언스필드로 장소를 바꿔 삼성과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을 벌인다. 일정이 없던 SK는 5일 만에 그라운드에서 온다. 상대는 NCD다. KIA의 5강 9부 능선을 넘게 한 2연승의 중심에는 핵터와 김선빈이 있었다. 핵터는 2일 경기에서 kt 타선을 9회까지 상대하면서 9이닝 4피안타 1볼넷 9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시즌 15승에 성공했다. 올 시즌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던 200이닝 고지도 넘어섰다. 핵터가 묵묵하게

마운드를 지켜주는 동안 '캡틴' 이범호는 1-1로 맞선 8회 2사 만루에서 적시타를 터트리면서 3-1 승리를 이끌었다. 이 안타로 이범호는 결승타와 함께 통산 19번째 2700루타 주인공에 이름을 올렸다. 돌아온 '예비역' 김선빈의 상승세도 반갑다. 3일 2번 타자 겸 유격수를 맡아 복귀 후 세 번째 경기를 치른 김선빈은 사이클링 히트에 홈런 하나 부족한 맹공을 퍼부으면서 전역 신고를 했다. 수비에서 실책도 기록했지만 호수비로 실수를 만회하면서 남은 경기에서 '김선빈 효과'가 기대된다. 3일 타자 수훈선수가 된 김선빈은 "코치님들에게 안 좋은 것들을 물어보면서 타격하는 것을 배웠다. 타이밍도 잘 안 맞았고 타이밍 잡을 때 자세가 뜨는 것 같아서 중심을 낮춰서 타격을 했다. 운이 좋았

던 것 같다"며 "어제 재미있게 경기를 하면서 마음이 편해졌다. 가을잔치 가능성이 커지면서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고 언급했다. 4번 타자 나지완도 복귀 후 첫 타점을 올리면서 몸을 풀었다. 나지완은 이날 0-1로 뒤진 1회 1사 1-2루에서 좌중간을 가르는 2타점 2루타를 때리면서 복귀 후 세 번째 경기에서 타점을 기록했다. 한편 선발로 출격한 양현종은 5.2이닝 8피안타 2볼넷 3탈삼진 5실점으로 아쉬운 기록을 남겼지만, 팀 타선의 도움 속에 시즌 10승에 성공했다. 타이거즈 좌완 사상 첫 3연 연속 10승 투수에 이름을 올린 양현종은 200이닝까지 돌파하면서 핵터와 함께 '동반 200이닝' 기록도 이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핵터 '동반 200이닝' 달성

91년 선동열·이강철 이후 기록 KIA의 외국인 선수 핵터가 200이닝의 꿈을 이뤘다. 양현종도 나란히 200이닝을 달성하면서 '동반 200이닝'이 기록됐다. KIA 에이스 핵터는 지난 2일 kt와의 홈경기에서 올 시즌 세 번째 완투에 성공하면서 15승과 200이닝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날 핵터는 100개의 공으로 27개의 아웃카운트를 만드는 동안 단 한 명의 주자에게만 홈을 허용하는 호투를 펼쳤다. 이날 경기 전까지 30경기에서 197.2이닝을 소화했던 핵터는 9이닝을 보태면서 키피와 리오스에 이어 타이거즈 외국인 투수 사상 세 번째로 15승과 200이닝을 만들어냈다. 핵터는 "좋은 날이다. 경기가 두 번 우천취소되면서 체력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서 경기 전부터 컨디션이 좋았다"며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달 달지는 투수

들이 200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것을 보면서 200이닝을 목표로 했었다. 좋은 날이고 기분이 좋는데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다. 집중해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핵터에 이어 3일 kt전에서는 양현종이 200이닝을 돌파했다. 이날 경기 전까지 30경기에서 194.2이닝을 던졌던 양현종은 이날 7-5로 앞선 6회 2사 3루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200이닝을 채웠다. 2007년 당시 한화였던 류현진에 이어 9년 만에 기록된 동종 200이닝이다. 타이거즈 역사에서는 1994년 조계현에 이어 처음이다. 핵터에 이어 양현종도 200이닝을 채우면서 2001년 SK의 에르난데스와 이승호에 이어 팀 동반 200이닝 기록도 작성했다. 타이거즈에서는 1991년 이강철·선동열 콤비가 마지막 동반 200이닝이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신인선수 11명·부모님 초청 환영식

KIA 타이거즈가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시즌 신인선수 환영식을 개최했다. 지난 kt전에 앞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1차 지명 유승철(투수·순천효천고)을 비롯한 이승호(투수·경남고), 박진태(투수·건국대), 김석환(외야수·동성고), 강찬영(투수·인창고), 송후섭(투수·개성고), 김용인(투수·성균관대), 박정우(외야수·덕수고), 최승주(내야수·야탑고), 정윤환(투수·진흥고), 이정훈(포수·경희대) 등 2017 신인선수 11명과 부모님이 참석했다. 경기 전 그라운드에서 팬들에게 인사한 신인 선수들은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진 유니폼을 부모님께 입혀드리며 그동안의 뒷바라지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이들의 유니폼을 입은 부모님 11명이 시구자로 나섰고, 신인선수들은 시구자로 부모님이 던진 공을 받아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여울기자 wool@

코리안메이저리거 시즌 마감 추신수·김현수 '가을 야구'

텍사스 디비전 시리즈 볼티모어 와일드카드 진출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15개 구장에서 30개 구단이 동시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최종전을 치르면서, 포스트 시즌에 올라갈 10개 구단이 모두 가려졌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서부)와 시카고 컵스(중부)·워싱턴 내셔널스(동부)가 각각 지구 우승으로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에 올라갔고, 아메리칸리그는 텍사스 레인저스(서부)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중부), 보스턴 레드삭스(동부)가 각각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 진출했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메츠(내셔널리그), 볼티모어 오리올스-토론토 블루제이스(아메리칸리그)가 1장씩 남은 디비전시리즈 티켓을 놓고 5일 단판대결을 벌인다. 한국인 선수 중에는 추신수(텍사스)와 김현수(볼티모어)가 포스트시즌에 올라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한다. 추신수가 속한 텍사스는 아메리칸리그 전체 승률 1위를 차지했고, 디비전시리즈와 챔피언십시리즈(ALCS) 모두 1차전을 홈에서 치를 권리를 얻었다. 텍사스의 디비전시리즈 상대는 볼티모어와 토론토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승자다.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린 추신수는 올해 4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골절상에서 회복해 정규시즌 막판 팀에 합류했다. 텍사스는 추신수를 빼고도 좋은 성적을 냈지만, 추신수의 풍부한 경험은 포스트시즌과 같은 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선수(소속)	성적
강정호 (피츠버그)	103경기 타율 0.255 21홈런, 62타점
김현수 (볼티모어)	95경기 타율 0.302 6홈런, 22타점
류현진 (LA 다저스)	1경기 1패 평균자책점 11.57
박병호 (미네소타)	62경기 타율 0.191 12홈런, 24타점
오승환 (세인트루이스)	6승 3패 19세이브 14홈런 자책점 1.92
이대호 (시애틀)	104경기 타율 0.253 14홈런, 49타점
추신수 (텍사스)	48경기 타율 0.242 7홈런, 17타점
최지민 (LA 에인절스)	54경기 타율 0.170 5홈런, 12타점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첫해 포스트 시즌까지 경험하는 행운을 누렸다. 지난달 29일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는 대타로 결승 역전 홈런을 터트리면서, 팀의 포스트시즌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83년 이후 월드시리즈 우승이 없는 볼티모어가 올해 정상에 도전하려면, 5일 열린 토론토와 와일드카드 게임에서 승리해야 한다. /연합뉴스

영암군 현대코끼리씨름단 인수 씨름단 창단

영암군이 해체된 현대코끼리씨름단을 인수해 영암씨름단(가칭)을 창단한다. 영암군은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이 조선산업 위기로 국내 유일의 프로씨름단인 '현대코끼리씨름단'을 해체함에 따라 최근 현대삼호중과 현대코끼리씨름단 인수에 합의하고, 내년 1월 씨름단 창단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인수조건은 영암군이 선수단 11명을 인수하고, 현대삼호중은 선수 숙소와 훈련장, 트레이닝 시설을 내년 말까지 지원·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영암군은 내년 1월까지 선수 연봉 및 계약금 협상, 직장운동부 설치·운영 조례 제정, 선수단 구성 등을 마칠 계획이다. 영암

군은 씨름단 창단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 및 관광상품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986년 현대중공업이 창단, 2005년 운영사가 현대삼호중으로 바뀐 현대코끼리씨름단은 김길경, 이태현 등 걸출한 전하장사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조선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팀 해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영암씨름단은 "씨름단 창단은 영암군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효과 외에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며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전통문화기자 jbh@